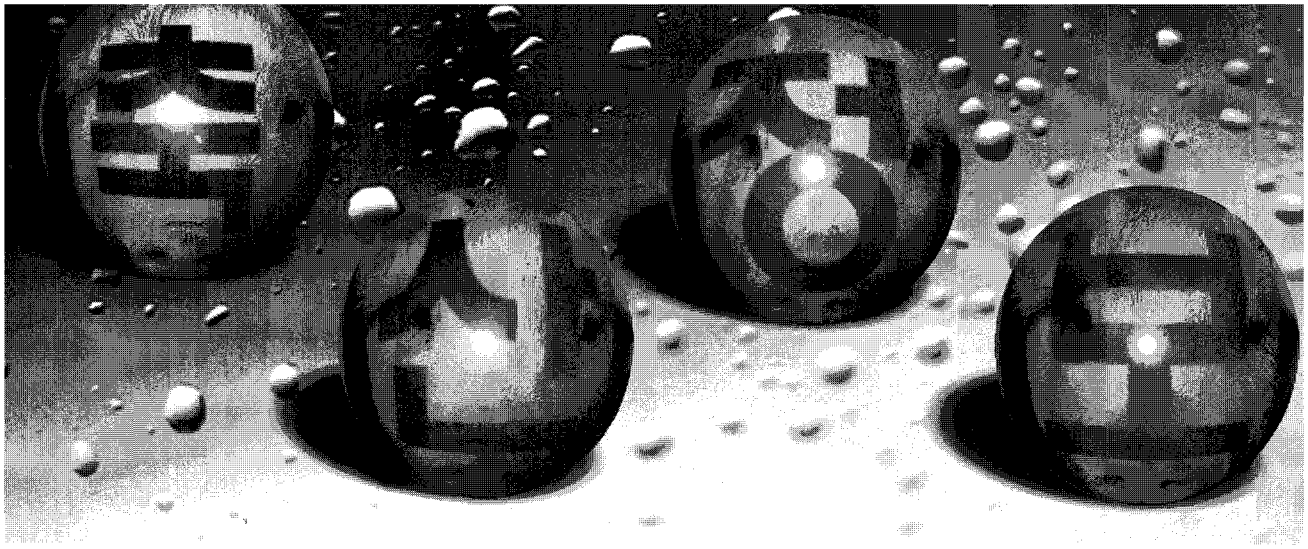


3월 1일부터 전국 도축장에서 돼지 두당 400원씩 양돈자조금 거출 개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임시위원장 김건태)'는 양돈자조금 사업의 조기시행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양돈자조금 임시사무국'을 지난 2월 4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1101호에 개설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조금 사업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우선 오는 3월 1일부터 농가 거출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전국 111개 도축장 영업자들에게 '양돈자조금 위탁징수관련 협조용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와 함께 양돈자조금 농가 거출금 징수안내문과 포스터도 함께 발송해 도축장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위원회는 또한 농림부에 협조를 구해 각 시·도에 양돈자조금 징수위탁 관련 협조요청을 하고, 양돈자조금의 수납을 대행하게 되는 전국의 도축장 대표 등을 대상으로 자조금 징수 관련 설명회를 2월 20일부터 각 도를 순회하며 실시하였다. 또한 각 시·군별로는 그 지역 자조금 대의원들이 도축장을 방문해 직접 협조를 요청키로 하였다.

관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 계도·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전국 1만 5천여 양돈인들에게 배부하였으며, 포스터 및 자조금 납부 안내문을 본회 지부(회)와 시·군 지역 축협, 도축장, 양돈조합 등에도 발송해 게시하도록 했다.

제1차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공동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건태·송건섭)는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소재 aT 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등 총 20명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태 본회 회장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관리위원회에 참석한 관리위원 및 감사들은 자조금 설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건태 본회 회장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추후 2월 19일 개최되는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차기 양돈협회장이 선출된 이후에 가능한 빨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해온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04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안) 등은 임시위원장과 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내용 등을 보완해 확정하기로 했다.

양돈자조금 임시 사무국 개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임시위원장 김건태)는 3월부터 거출되는 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돈자조금 임시사무국을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1101호 한국양돈협동조합연합회 사무실에 임시로 개설했다.

■ 전화 : (02)6300-2901, 팩스 : (02)6300-2905

한·칠레 FTA비준안 국회 통과

- 협정 발효되면 돼지고기 10년 후 무관세 통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칠레산 수입 물품에 대한 특혜 세율 및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FTA 비준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 농어민 삶의 질 향상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 상반기까지 협정을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전기동 1개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농산물의 경우 첫 해에 종우와 종돈, 종계, 배합사료, 생모피, 양모, 밀 등 22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10년 동안 관세를 점진적으로 단축하게 되며, 10년 이후에는 무관세로 통관하게 된다.

농림부,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중개정령' 공포

- 돼지 병성감정료 2천~3만원 죽거나 병든 돼지는 면제

농림부는 지난 2월 5일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규칙중 개정령을 최공 공포했다.

이에 따라 돼지 두당 병성감정수수료는 3만원, 혈액검사 3천원, 혈청화학검사 1만원,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2천원, 분변내 기생충 검사 3천원, 병리조직검사 5천원, 원유성분검사(5종) 2천언, 유산관련 질병검사 3만원 등이다. 그러나 부검의 경우 혈액검사 및 전자현미경 검사 등의 비용이 추가된 금액이므로 별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돼지 두당 병성감정 수수료는 최고 3만원, 최저 2천원이 된다. 하지만 검역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병성감정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친환경 양돈직불제 올해부터 시행

- 2개년(2004~2005년)동안 시범사업 추진
- 두당 2만원씩 최고 1천500만원 지원

친환경양돈직불제 사업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성과 분석 및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2월 12일 축산업 등록을 마친 양돈농가 400호를 대상으로 친환경 양돈직

농림부 차관에 김주수 차관보 승진 발령

김주수 농림부차관

정부는 지난 1월 28일자로 농림부 차관에 김주수(52세) 전 차관보를 승진 발령했다. 심임 김주수 차관은 29일 취임식을 갖고, "올해는 농정시책 개발 못지 않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신임 김 차관은 경북 의성 출신이며, 행시 18회 출신으로 농림부 농어촌복지담당관, 시장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식량정책과장, 공보관, 식량정책국장, 유통정책국장, 축산국장, 농업정책국장을 거쳐 지난 2001년5월부터 대통령비서실 농림해양비서관을 역임함으로써 국내 농업계에서는 농림분야 정통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불제 사업을 시범 실시키로 하고, 참여농가에 대해 두당 2만원씩, 최고 1천500만원 한도에서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소득감소분 또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희망농가는 3월 20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 양돈직불제 사업에 참여하는 양돈농가는 분뇨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등록제 기준 사육밀도 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액비화(정화처리는 인정, 해양투기는 제외)하여 적법하게 전량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분뇨처리 내용 및 경로, 조사료 생산, 소독 실시 등 주 1회 이상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을 장부에 기장하고,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며, 환경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농림부, "돼지 사육두수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열화 사업 지원"

- 본회의 양돈계열화사업 시설자금 지원 중단 요청과 관련해

농림부는 양돈계열화사업 시설자금 지원과 관련해 내수 위주의 안정적인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당분간 사육두수의 증가를 억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림부는 양돈계열화 사업이 '전문 경영체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의 일관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등 농가를 위한 것이며, 축산업의 전업화, 규모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사료비, 약품비 등 운영자금은 물론 계열주체 사육시설 자금을 지원해 경영 안정은 물론 농가의 계열화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돼지고기의 대일수출 중단 이후 내수위주의 안정적인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당분간 사육두수의 증가를 억제하고, 운영은 내실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돈열, 외국서 유입된 것이 유력"

- 검역원, 2002~2003 역학조사 결과 분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최근 200여 페이지 분량의 '2002~2003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돈열에 대

한 역학조사 결과 바이러스 유전형이 그동안 국내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그룹 3)가 아닌 새로운 바이러스 유전형(그룹 2)로 확인 됐기 때문에 발생농장 인근농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중국)에 의해 돈열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1일자로 전국의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선언한 이후 5개월 만인 2002년 4월 철원지역에서 2건의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12월까지 인천·경기 지역에서 11건이 추가 발생했다. 이어 2003년 3월부터 5월에는 발생지역에서 오염된 종돈장의 후보돈 분양과정에서 6개도 25개 시·군에 걸쳐 65건이 발생,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철원지역의 최초 발생농장은 인근 농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중국) 근로자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당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이 기존 국내의 바이러스와는 다르고, 중국에서 발생한 것과는 100%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2002년 인천·강화와 서구 및 경기 김포, 이천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원발농장이 2개인데, 인근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나 인근 주민의 해외 여행자 등을 통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발농장 중 1개 농장으로부터 오염된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이동에 의해 연쇄적으로 전파됐다고 밝혔다.

2003년 돼지콜레라 전국 확산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의 경우 원발농장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상원축산(제1농장)으로 이 농장의 후보돈 분양과정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 확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시기, 재발 막기 위해 방역 철저히 해야

- 가금인플루엔자·광우병 등 이어 구제역 발생하면 축산업 궁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소 부루세라 발생과 미국의 광우병 파동으로 세간의 모든 관심이 가축의 질병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질병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구제역 방역에 양축농가가 보다 많은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축산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2000년 국내에서의 첫 구제역 발생과 2002년의 재발이 모두 2월 중순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상기시켰다.

2002년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2000년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재발이 아닌 동북아시아 해외여행객에 의한 전파로 추정되고, 최초 발생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는 주로 사람과 차량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 확인됐기 때문에 양축농가 스스로 방역 준수사항을 지켜 축사 내·외부 정기적인 소독 등 지속적인 구제역 차단방역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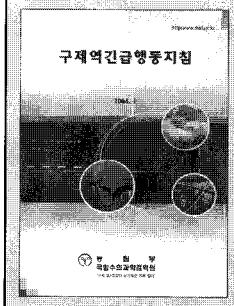
2003년 PED 발생두수 2배 가까이 늘어

- PED발생 90농가 4만297두 발생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발병률이 급증했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 설사병은 90농가에서 4만297두가 발생해 2002년 48농가의 1만3천924두에 비해 각각 87.5%, 189.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농림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책자 제작 배포



농림부는 그간의 구제역 방역경험을 토대로 「구제역긴급행동지침」(2000.8)을 개정해 발생 상황별로 방역주체가 해야 할 긴급조치 사항과 세부행동지침을 보완한 지침서 3,000부를 책자로 제작·배부해 각 방역기관 및 축산단체 등 방역주체들이 방역 추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2월 한달 설사병 발생 건수는 9농가에서 1만2천59두에서 발생, 작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더욱이 설사병이 전국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편 돼지 오제스키질병(AD)은 30농가에서 355마리가 발생, 전년 50농가의 1천792두에 비해 각각 40%, 80.25가 감소했으며, 전염성 위장염(TGE)은 지난해 8월 1농가에서 300마리가 발생했을 뿐 2002년 4농가 343두보다 각각 3농가가 줄고 43두가 줄었다.

가축분뇨 활용 벼농사 화학비료 50% 절감 효과

강원도 철원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가축분뇨(돈분슬러리)활용 벼농사 화학비료 50% 절감에 관한 연구"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토양(식양질) 특성에 맞는 액비시용 기준량을 제시하되 밑거름(전체 시비량의 50%)으로만 활용하도록 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1/2로 절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환경친화형 농업의 모델로 정립하고자 농림부에서 시행한 농림특정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8월 6일부터 2003년 8월 5일까지 실시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발효액비의 사용 적정량은 질소성분량을 기준으로 하여 10a당 9~11kg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과소 시용시에는 벼의 영양생장이 저조하고 과다 시용시에는 과번무에 의한 병해충 다발생 및 도복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필히 적정량을 밑거름으로 시용한 후 추비는 화학비료로 주되 질소 성분량을 기준으로 10a당 4kg 정도 시용하고 부족한 인산과 칼리 성분은 단비로 보충한다면 수량성과 안정 생산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벼농사에 있어서 화학비료 50% 절감은 분명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가금인플루엔자 돼지 전염 근거 없다"

- WHO 등 밝혀, '사람간 전염' 확인 안돼

최근 베트남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돼지에게서 발견됐다는 발표와 사람간 전염에 의한 사망 의심 사례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유엔기구들이 밝혔다.

앞서 식량농업기구(FAO) 베트남 지부는 하노이와 인근 지방의 돼지 코에서 채취한 분비물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인 H5N1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었다. 사람과 유전자가 비슷한 돼지 감염이 사실일 경우 사람간 전염 위험도 한층 높아질 것이란 우려를 자아냈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로마의 FAO 본부는 베트남의 시험 결과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베트남의 돼지가 감염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베트남 농업부도 돼지 샘플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H5N1 바이러스는 아직 사람간 전염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WHO는 지난 달 사람간 전염에 의해 숨진 것으로 의심된 베트남의 두 자매에게서 바이러스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인간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각각 조류에게서 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산 돈육, 대일 수출 가시화

- 일본, 한국 구제역 청정국 인정

농림부는 지난 2월 11일 일본정부가 지난 2월 10일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하고, 관련법령(가축전염병예방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파동으로 중단되었던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일본과의 수출위생 협의를 거쳐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그 외 기타지역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열처리한 돼지고기 가공품 등의 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출단가는 kg당 4달러로 필리핀의 kg당 1.3달러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관련 업체들과 양돈농가는 철저한 위생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월 항체양성률 94.7%, 11월 92.5%

지난해 전국의 돈열 항체양성률 누계가 73.7%로 조사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이 발표한 2003년 12월 검역원 및 각 시·도별 돈열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2003년도 한해 동안 돈열 항체양성률은 73.7%로 조사됐다. 한편 12월 한달간 돈열 항체양성률은 94.7%로 9월 94%, 10월 93.3%, 11월 92.5%로 계속 조금씩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져 농가들의 돈열 박멸에 대한 인식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비육돈 71.5%, 번식돈 80%, 자돈 70.7%이며, 12월 한달간은 비육돈 93.7%, 번식돈 97.0%, 자돈 97.4%로 자돈에서 돈열 항체양성률이 번식돈보다 높게 나타나 돈열 백신접종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용 완두콩,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신규 추가

최근 재정경제부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의 배합사료 원료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2004년에는 기존의 할당관세 지원 이외에 사료용 완두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신규로 추가했으며, 밀기울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등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사료원료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할당관세 품목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현재 DDA 협상이 진행중

에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주요 사료원료에 대해 적용되는 0~8%(대부분 0~2%)의 할당관세에 대한 기본관세율의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방역본부에 격려금 전달

▲ 좌로부터 축산신문 윤봉중 사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영채 본부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건태 회장(대한양돈협회장), 유동준 부회장(한국단미사료협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가 최근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채혈 등 긴급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영채)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김건태 회장, 유동준 부회장, 윤봉중 축산신문 사장, 김규중 한국오리협회장은 지난 1월 19일 방역본부를 방문하고 "최근 방역본부가 가금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외국인농업연수생 연중 수시 접수중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국인 농업연수생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접수 신청자격은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연수생 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것과 양돈의 경우 최소 1,000㎡ 이상의 돈사 면적을 확보한 농가라야 가능하다.

축산미래연대(가칭), 3월4일 창립총회 개최 예정

- '축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갖고 결정

축산관련단체 및 학계, 언론의 일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가칭 '축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날 모임을 갖고 '축산미래연대'로 명칭을 잠정 결정하고 오는 3월 4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축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 2월10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축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 앞으로 이 모임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 모임의 명칭을 "축산미래연대"로 잠정 결정한 후 새로운 회칙을 검토하는 등 창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밟았다. 창립총회 장소는 농협 안성연수언으로 잠정 확정하였으며, 각 생산지 단체에서 축산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를 발기인 대회로 가름키로 하고 운영위원들의 서면결의를 받기로 했다.

한편 축단협 회장단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신축산회관 건립과 관련해 신축산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박명국 본부장으로부터 부지 선정과 관련 보고를 듣고 경기도 용인, 안양 등의 부지를 직접 둘러보았다. 양돈